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 비판과 대안탐구의 여정: 『IMF 시대의 멕시코』에서 『대홍수』까지

김기현*

단독/선문대학교

Kim, Ki-Hyun (2013) "A Journey for the Criticism of Neo-liberalism to the Seeking of its Alternatives in Latin America: From *Mexico in the Time of IMF* to *A Great Flood*"

ABSTRACT

The main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recall Sung-Hyong Rhee by examining his lifelong academic legacies. His career has left a sizable legacy of research results, ranging from Latin American politics and economics to studies of cultures and histories. In this paper, we give special attention to his research about Latin American economies. His studies in this field focused on the criticism of neo-liberalism and appraisal of its alternatives in Latin America. To examine the lifelong academic achievements of Sung-Hyong Rhee, we focus primarily on the four books in which his research has been felicitously gathered: *Mexico in the Times of IMF*, *Light and Shadow of Neoliberalism*, *Latin America. Politics and Economics of the Perpetual Crisis*, and *A Great Flood*.

Sung-Hyong Rhee's interest in Latin American neo-liberalism began with his analysis of Argentina, and extended to Mexico, Peru, Chile, Brazil, and even Venezuela. Alongside the analyses of the general socioeconomic conditions behind each country's neo-liberalism he shed light on the concrete mechanisms of neo-liberal policies, such as privatization, regional integration, and as well as on the alternatives to neo-liberalism in Latin America.

Key Words: Sung-Hyong Rhee, Latin America, neoliberalism, alternatives, privatization / 이성형,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 대안, 민영화

서론

이성형이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났다. 학회 메일을 통해 그의 사망 소식을

* Ki-Hyun Kim is professor of spanish and latin american studies at Sunmoon University, Korea (Email: drkhkim@sunmoon.ac.kr).

접하게 되었을 때의 당혹스러움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으나 그 얼마 전까지 여러 연구 작업들을 함께 했던 터라 툭툭 털고 일어날 줄 알았다. 그리고 다시 함께 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 글은 아쉬움을 달래기 위한 나 나름대로의 작은 위안의 작업이다.

이성형은 명실상부 국내 라틴아메리카 지역학계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인물이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끝없는 열정과 능력에 비해 그의 삶의 여정은 그다지 평탄치 않았다. 그러한 삶이 세상과의 이별을 재촉한 것이 아닌가 싶어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다. 최근에 그는 서울대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교수로서 그나마 안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그 후에도 그는 상한 몸을 돌볼 생각을 하지 않고 보다 일에 몰두했다. 주변 사람들의 좀 쉬라는 권유도 듣지 않았다. 열정이 멈추는 순간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기도 하는 듯이 그렇게 그는 그가 사랑하는 라틴아메리카에 보다 더 매달렸다. 그와 마지막 1년 동안 여러 작업을 함께한 필자는 평시에 그가 아픈 사람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릴 때가 많았다. 수척한 모습이나 좋아하던 술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심각하게 생각은 했지만 그의 열정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한 식당에서 브라질 경제와 관련된 윤독회를 할 때 그의 진지했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라틴아메리카 지역학계에서 이성형이 돋보이는 이유는 단지 그가 라틴아메리카와 관련하여 가장 왕성한 연구를 했다는 데에만 있지는 않다. 그보다 필자는 그가 진정한 지역학의 모델을 보여주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그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의 유감’이라는 짧은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결국 어떤 한 지역을 이해하는 데는 하나의 분과학문적인 전문성만 고집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 필자는 사회적 컨텍스트(맥락)를 다루는데 가장 둔감한 주류 경제학이 지역연구에 기여할 가능성은 다른 분과학문에 비해 비교적 작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 관한 한 정치학은 낫다. 그렇다고 정치학자들의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 과연 우리 학계가 소비하는 (비교)정치학 이론들이 지역연구와 얼마나 관련이 있을 것인가 가끔 자문해본다.”(Rhee 2002, 288).

그는 지역학에서 이런 분과학문의 상황을 ‘외눈박이의 무지’라고 평가한다. 그리고 그는 바람직한 지역연구의 모델로서 역사학과 인문학적 전통에 바탕을 두고 거시적으로 조망하고 또 종합적으로 상을 그리는 능력이 뛰어난 프랑스

사회과학의 형태를 제시한다.¹ 그에 따라 이성형은 스스로 분과학문에 함몰되지 않고 통합적 시각을 가지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정치에서 미술까지, 경제에서 음악까지, 사회사상에서 스포츠까지, 역사에서 문학까지 그야말로 라틴아메리카에 관한 거의 모든 분야를 두루 섭렵했다. 또한 그는 지역학을 위해서는 문화인류학적 훈련이 필요하고, 중남미 문학서적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늘 강조했다. 그를 통해 그는 지역학 연구방법론으로 항상 제시되는 학제간 연구를 자신의 내부에서 스스로 실천했다. 다양한 분야 전공자 간의 학제간 연구가 경험상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찌면 그는 진정한 지역학의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나는 감히 그를 라틴아메리카연구의 르네상스적 인물이라고 부르고 싶다.

그럼으로 그의 연구업적에 대한 평가도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그의 일생의 업적들은 한 사람이 단 한 편의 리부 글에서 모두 언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그의 연구업적을 정치 분야, 경제 분야, 사회문화 분야 세 편으로 각각 나누어서 다루기로 결정했다. 이 글은 그의 경제 분야 연구업적에 대한 평가 작업이 될 것이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 이성형의 연구는 한 마디로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의 비판적 해부와 대안의 탐구라고 요약할 수 있다. 관련된 그의 글들을 읽어가다 보면 198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의 전체적 모습들이 그려진다. 그는 관련해서 수많은 글들을 논문집이나 일반잡지 등에 게재했다. 20년 이상 동안 그가 쓴 글들을 모두 수집하는 것조차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는 대부분의 글들을 몇 권의 단행본(『IMF 시대의 멕시코: 신자유주의 개혁의 명암(1982-1997)』, 1997; 『신자유주의 빛과 그림자: 라틴아메리카 정치와 경제』, 1999; 『라틴아메리카: 영원한 위기의 정치경제』, 2002; 『대홍수: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 20년의 경험』, 2009a)으로 엮어서 출판했다. 그래서 여기저기 그의 글들을 수집하기 위한 수고를 덜 수 있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 네 편의 단행본을 중심으로 그의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 비판과 대안 탐구에 대한 여정을 살펴볼 것이다. 물론 이 책들에

1 이성형은 프랑스 라틴아메리카 지역학의 전형으로 다음 두 권의 책을 제시하고 있다. Alain Rouquié, *América Latina: Introducción al extremo occidental*, Siglo XXI, 1989; Alain Touraine, *América Latina. Política y sociedad*, Espase Calpe, 1989.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글들도 당연히 함께 다루게 될 것이다.

아르헨티나 사례연구에서 시작된 신자유주의 비판

이성형이 라틴아메리카와 관련하여 최초로 발표한 글은 1989년 『한국과 국제정치』 6호에 게재한 ‘최근 브라질 노동운동의 전개’였다. 그리고 그 후 몇 년간 발표한 논문들의 대부분은 정치와 관련된 것들이다. 1990년에는 라틴아메리카 관련 최초의 단행본인 『라틴아메리카 자본주의 논쟁사』(Rhee 1990)를 발표했다. 이 글은 기본적으로 사회이론서이지만 라틴아메리카 자본주의 발전의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경제와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 따라서 여기서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저자가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책은 ‘(박사)학위논문을 거의 수정 없이 활자화한 것이다.’ 학위 논문을 쓸 때 그의 연구 목적은 라틴아메리카의 사회이론을 서구학계의 시각을 거치지 않고 소개하겠다는 것이었다. 독학한 스페인어에 대한 자신감이 그러한 연구를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이 책은 라틴아메리카 학계의 논의를 현장감 있게 소개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따라서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위논문의 제목이었던 ‘라틴아메리카 사회구성체 논쟁: 1960-80년대 논의를 중심으로’에서 보듯이 이때까지 그는 비교정치학적 시각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았다. 즉 라틴아메리카 사회를 있는 그대로 그 자체를 바라보기 보다는 우리 지성계에서 진행되고 있던 사회구성체논쟁을 이해하기 위한 라틴아메리카 사례의 비교분석이라는 느낌이 여전히 남아있다. 게다가 7장의 ‘라틴아메리카 자본주의 논쟁: 소련학계의 논의’를 부연한 것은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방식으로 생각하려는 라틴아메리카 비판적 이론에 대한 탐구라는 이 책 본래의 목적에서도 벗어난 듯 보인다. 어쨌든 라틴아메리카 자본주의 발전의 문제점에 대한 라틴아메리카 지식인들의 고뇌를 서구학계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처음으로 직접 소개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라틴아메리카 자본주의 발전의 한계를 두고 그것이 제국주의 지배로 인한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종속성에 있느냐, 아니면 내부적으로 반봉건적 계급구

조의 지속성에 있느냐 하는 종속좌파와 전통좌파 간의 학술적 논쟁은 사실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1990년대부터는 신자유주의에 입각해 라틴아메리카 자본주의 발전의 문제점을 모두 국가개입주의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한 이론들이 한계에 부딪칠 때마다 앞서 제기된 문제점들이 다시 고개를 든다. 따라서 우리는 이 책에 담긴 내용들을 단순히 과거의 흘러간 논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보다 『라틴아메리카 자본주의 논쟁사』는 라틴아메리카 발전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서로 인식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의 가치는 지금도 여전하다.

한편 이성형이 라틴아메리카 경제발전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대홍수』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1992년 9월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방문하면서부터이다(Rhee 2009a, 5). 그러니까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에 대한 그의 최초 관심은 멕시코보다 아르헨티나였다. 아르헨티나는 1989년 페론당(정의당)의 메넴이 정권을 잡으면서부터 신자유주의 개혁을 단행했다. 물론 아르헨티나가 라틴아메리카 최초의 신자유주의 개혁 사례는 아니다. 이미 1970년대에 칠레의 피노체트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시했으며, 1980년대에는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멕시코와 과도한 외채를 가진 볼리비아가 이미 신자유주의 개혁을 단행했었다. 그리고 1980년대 말에 들어서 신자유주의가 대세로 자리 잡기 시작할 때에도 이미 멕시코의 살리нас 대통령이 신자유주의 개혁을 먼저 실행하고 있었다. 어쨌든 이성형의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 비판적 분석의 여로는 아르헨티나 메넴 정부의 개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연구의 결과 그는 1992년에 아르헨티나 경제와 관련하여 두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하나는 『국제정치논총』(Rhee 1992a)에 발표한 ‘아르헨티나의 외채 위기와 민주화’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연구』(1992b)에 발표한 ‘민선정부 하의 경제정책: 알폰신 정부의 아우스트랄 계획에서 메넴정부의 경제개혁에 이르기까지’이다.²

이 글들을 통해 이성형은 아르헨티나에서 메넴 정부의 신자유주의 프로젝트가 들어 설 수밖에 없었던 정치경제적 환경, 즉 이전 알폰신 정부의 구조주의적 아우스트랄 플랜의 실패요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메넴 정부가 실행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 프로젝트의 구체적 내용들을 소개한다. 이 내용들

2 이 두 글은 보완 수정을 거쳐 『신자유주의의 빛과 그림자』(Rhee 1999)에 다시 재편집되었다.

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신자유주의 프로젝트에 대한 그의 전망은 흥미롭기에 여기서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그는 이 글에서 메넴의 신자유주의 프로젝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판적 전망을 제시했다. 첫째, 공적영역의 사유화가 부패한 권력을 추방하고 효율성을 강화하기보다는 국가를 약화시킴으로써 시민사회가 약육강식의 싸움터가 될 것이다. 둘째, 소득집중이 강화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 셋째, 수많은 조치들이 의회를 통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시행됨으로써 행정부의 자의적 권력남용이 행해지고 있다. 넷째, 환율안정을 위해 도입된 ‘태환법’은 통화주권의 상실을 가져옴으로써 주권국가를 해체한다. 다섯째, 인플레이션은 잡았지만 장기적으로 경제발전을 이끌 성장산업에 대한 육성 정책이 부재하다 (Rhee 1992a, 178-179).

지금에 와서 보면 그의 이러한 지적들은 모두 현실로 드러났다. 민영화는 경제의 효율성을 강화하기보다는 부패와 새로운 민간 재벌들의 탄생을 가져왔으며,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민주주의는 위임민주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안정화는 지속적 성장을 가져다주지 않았고, 태환법으로 인한 고정환율제는 결국 2000년대 초의 심각한 경제위기를 불러왔다. 지금이야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가 낮설지는 않지만 신자유주의가 대체로 간주되던 1990년대 초에 그러한 비판은 상당히 외로운 작업이었을 것이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월간 정치시사잡지 『오피서버』에 게재한 ‘라틴아메리카의 악순환, 탈출구는 보이는가’라는 글에서 보다 우울하게 묘사되고 있다. 이 글에서 그는 “라틴아메리카 대륙의 위기는 당분간 해결될 전망이 없다. 사회는 보다 더 해체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고(물론 사라지는 것은 아닐진대), 정치적 민주주의는 불안정한 곡예를 그리면서 나아갈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도 했다(Rhee 1992c, 477).

이는 라틴아메리카 경제가 ‘잃어버린 10년’을 지나 다시 안정을 회복하고 새로운 성장의 국면에 들어갔다는 당시의 일반적 전망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것은 라틴아메리카 경제에 대해 낙관적 시나리오만을 그리던 당시 국내 언론에 찬물을 끼얹는 목소리였다. 실제로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는 안정화, 개방화, 민영화를 통해 외국자본을 유입하고 그를 통해 성장을 추구하는 모델이었다. 그것이 외채위기 이전과 다른 점은 외국자본이 과거와 같이 국채와

같은 형태가 아니라, 금융시장 개방을 통해 주식시장 등에 유입되는 단기성 자본이라는 것이다. 단기성 자본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라틴아메리카를 떠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한 나라 경제의 운명도 좌우되게 되었다. 어쨌든 단기성 외국자본 유입을 통한 새로운 성장모델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에 비해 이성형은 그것이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1990년대에 라틴아메리카에서 반복된 외환위기는 외국자본에 의존한 성장모델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 점에서 이성형의 지적은 틀리지 않았다.

외환위기를 경험한 멕시코 사례에 대한 분석

그 후 1993년부터 이성형의 관심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멕시코에 집중되었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 그의 연구는 주로 멕시코 살리나스 정권의 신자유주의 경제개혁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글들은 1998년에 출판된 『IMF 시대의 멕시코: 신자유주의 개혁의 명암(1982-1997)』(Rhee 1998)에 모아졌다. 이 책은 물론 경제적 분석의 글들만 담고 있지는 않다. 그보다 정치, 사회와 관련된 글들이 오히려 더 많다. 하지만 제목으로 볼 때 이를 그의 신자유주의 분석 최초의 단행본이라고 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멕시코는 1982년 모라토리움 선언 이후 잠시 신자유주의 개혁을 단행했었다. 그러나 3년 만에 그것을 포기했다. 그러나 1989년 살리나스 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다시 본격적 시장개혁을 시작했다. 살리나스는 1994년 폐소화 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시장경제 개혁가로 알려졌다. 그러나 1994년 1월 1일 북미자유협정이 발효되는 바로 그날 치아파스에서 원주민 반란이 일어났다. 신자유주의 개혁의 그림자가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해 12월에는 폐소화 위기가 발생했다. 그러나 그 후 1년 반 만에 멕시코 경제는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은 멕시코의 경험은 마침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우리들에게 좋은 참고 사례가 되었다. 이 책은 바로 이런 시의성을 가지고 탄생했다.

책 머리말에서 이성형은 멕시코 신자유주의 개혁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일단 성장률의 차원에서 1998년 일인당 GDP가 1980년 대비

21.3% 감소했으므로 성적은 D 수준에 가깝다. 안정화 측면에서는 1990년대 두 자리 이상의 물가 상승률을 예로 들면서 ‘성장 없는 장기간의 인플레이션’ 체제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폐소화 위기에서 보듯이 안정적 성장기반을 확보하는 데에도 실패했다. 게다가 경제사회적으로도 고용창출 없는 저성장, 엄청난 규모의 실업 및 반실업, 바닥을 모르는 저임금, 그리고 사회적 해체를 유발하고 있다. 결국 이성형은 멕시코에서 신자유주의 개혁은 성장 잠재력을 회복시키지 못함으로써 북미자유무역협정으로 꿈에 부풀어 있던 경제를 결국 불안정한 상황으로 다시 몰고 갔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냈다고 주장한다(Rhee 1998, vi-xiv). 이러한 그의 주장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신자유주의는 명보다는 암이 더 큰 것처럼 보인다. 그는 신자유주의에 대해 누구보다 비판적이었다.

이 책에 실린 경제관련 글들(‘멕시코의 세계화 경험: NAFTA의 충격; 신자유주의 경제개혁: 가면의 이중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멕시코의 세계화 경험: NAFTA의 충격’에서 이성형은 우선 외적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그의 글을 시작한다. 그에 말에 따르면 “만약 우리가 세계화의 심화에 따라 그 힘이 강화되고 있는 초국적 기업, 초국적 금융기구, 그리고 선진국들의 독특한 권력효과를 무시한다면, 제 3세계의 변화상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은 그만큼 현실 적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Rhee 1998, 5).

그러면 이성형은 그러한 외적변수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가? 먼저 그는 세계화 즉 NAFTA로 인한 멕시코 주권 위기의 가능성에 주목한다. 그는 NAFTA로 인해 멕시코가 스스로 발전모델을 선택할 기회를 상실하게 됨을 우려한다. 즉 NAFTA는 신자유주의 발전 모델을 보다 가속화하고 공고화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즉 그의 말에 따르면 “정부의 ‘국가발전계획’ 보다는 초국적 기업의 투자정책이 지역개발과 국민 생활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Rhee 1998, 17).

다음으로는 ‘영토적 통일성의 위기’를 지적한다. 그것은 NAFTA로 인해 상대적으로 발전한 북부 마킬라도라 공업지대와 여전히 낙후한 남부 농업지대 사이에 ‘두 개의 멕시코’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역적 불균형은 이미 ‘중속적 산업화’ 과정에서 심화되어 왔지만 신자유주의와 NAFTA를 계기로 새로운 차원에 진입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Rhee 1998,

24-30).

결론적으로 이성형은 NAFTA로 인해 멕시코 사회가 혁명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보았다. 이러한 시각은 외적변수가 라틴아메리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비판적으로 강조하는 것으로서 종속주의(dependentismo)³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화는 전 지구적 차원의 무한경쟁 체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세계화에는 분명 승자와 패자가 존재할 것이다. 세계화 옹호론자들의 윈-윈을 통한 상호호혜가 현실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이성형은 세계화와 NAFTA가 멕시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 않았다.

한편 ‘신자유주의 경제개혁: 가면의 이중성’에서 이성형은 멕시코에서 신자유주의 개혁의 역사적 배경을 우선 분석한다. 그는 멕시코가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과거 발전주의 모델 하에서 경제적 민주주의(포퓰리즘) 과잉의 문제를 지적한다. 물론 이성형은 포퓰리즘을 단순히 ‘인기영합주의’로 해석하는 것에 반대한다(Rhee 2004, 50-55). 그러나 1980년대 외채위기의 뿌리가 1970년대 석유산업 붐 시기에 외채유입을 통한 과도한 투자와 정부 재정지출의 무리한 확대에 있었음을 인정한다. 포퓰리즘을 단순히 ‘인기영합주의’로 해석하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그의 폐해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외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용된 신자유주의를 안정화, 개방화, 민영화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심도 있게 분석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그는 비판적 입장을 확고히 한다. 물론 그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결과 멕시코가 석유수출의존 경제에서 벗어나 비석유수출부문이 크게 육성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린다. 하지만 그것이 수출 위주의 대기업에만 혜택을 주고,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중소기업에는 붕괴를 가져왔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또한 이 책에 실린 글들이 멕시코에서 신자유주의가 가장 전성기를 구가하던 폐소위기 전, 즉 1994년 이전에 쓰여진 것들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이성형의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다. 당시는 멕시코의 신자유

3 종속주의는 종속이라는 상황으로 인해 라틴아메리카 경제가 영원히 저발전(subdesarrollo)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종속이론(teoría de la dependencia)과는 분명히 다르다. 그러나 종속이라는 외부적 변수가 라틴아메리카 경제를 왜곡하는 중요한 변수라고 본다는 점에서 양자는 서로 일치한다. 종속주의에 따르면 종속의 상황은 내부의 계급관계에 따라 극복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

주의 개혁을 추진했던 살리나스 대통령이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시장경제 개혁가로서 널리 칭찬을 받던 시절이다. 따라서 당시 멕시코의 경제개혁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이성형은 멕시코 경제에 있어서 외채와 무역수지 적자의 증가 문제를 들어 그의 불안정성을 지적했다. 그가 그러한 비판을 하고 1년도 채 되지 않은 1994년 12월에 멕시코에서 폐소화 위기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의 지적은 매우 적절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MF 시대의 멕시코: 신자유주의 개혁의 명암(1982-1997)』이 출판된 1998년은 우리나라도 막 외환위기를 거쳐 IMF의 관리 체제에 들어갔던 시점이다. 따라서 그 보다 앞서 1994년에 그와 유사한 경험을 했던 멕시코의 사례는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책은 특별한 시의성을 가진다.

그러나 IMF 시대의 생존 전략을 알기 위해 이 책을 펼친 독자들은 다소 실망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책은 폐소화 위기 이후보다는 그 이전의 신자유주의 개혁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서문에서 폐소화 위기 이후의 경제적 성과에 대해 개괄적으로 언급하고는 있지만 그 부분이 이 책의 주요 분석 대상은 아니다. 더구나 외환위기 이후의 생존전략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 물론 외환위기 이후의 구체적인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대해 세밀히 알 수 없다는 아쉬움은 있으나 멕시코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이 책은 전혀 모자람이 없다.

이 책은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의 실체를 비판적으로 파악한 국내 최초의 단행본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막 신자유주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하던 국내 학계에 이 책이 미친 영향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이 책은 그와 관련하여 많은 논쟁을 불러오기도 했다.

한 예로 당시 경희대학교 아태국제대학원에 재직하던 이내영은 『경제와 사회』(Lee 1999)에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에 대한 낙제점수 매기기: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이성형의 『IMF 시대의 멕시코: 신자유주의 개혁의 명암(1982-1997)』에 대한 서평을 썼다. 그는 이 책이 진보 진영의 학자들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거대담론 위주의 비판과 달리 충실한 자료수집과 현지연구에 바탕을 둔 비판적 분석이라는 점을 무엇보다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이 책이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에 대한 비판을 넘어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의 부진한 경제적 성과나

지나친 사회적 비용과 민중부문의 고통과 희생 등에 대한 저자의 주장이 매우 설득력이 있고 쉽게 이에 동의할 수 있지만 여전히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은 ‘과연 멕시코가 장기간의 민주주의적 경제정책의 유산과 외채위기 등의 구조적 제약 하에서 신자유주의 개혁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이 정도의 개혁이라도 성취할 수 있었을까?’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Lee 1999, 244).

실제로 1980년대 페루 알란 가르시아의 인티 플랜을 포함한 구조주의 비정통파 안정화 모델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라틴아메리카에서 신자유주의 외에 대안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러한 대안의 부재가 신자유주의 정당성의 근거가 된 것 또한 사실이다. 실제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 정도를 제외하고 라틴아메리카의 그 어떤 보수적 지식인도 신자유주의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지지하지는 않는다.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 대부분 사람들은 신자유주의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비판이 없다면 대안의 탐구도 없다. 따라서 대안과 관련된 문제제기는 매우 흥미롭지만 대안이 없다고 해서 신자유주의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비판이 무의미한 것도 아니다. 그런 점에서 이성형의 신자유주의 비판은 의미를 가진다.

한편 『시대정신』 제3호(Oh 1999)에서 열린시민사회연합 소속의 오현미는 또 다른 서평에서 이 책의 의미를 멕시코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의 제시라는 의미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녀는 당시 외환위기 극복의 성공적 사례로서 흔히 거론되는 멕시코의 개혁이 한편으로는 실패한 사례로 비판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기여라고 평가한다. 따라서 이 책은 우리들에게 신자유주의 시장논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의 부정적 측면들을 인식하고 그를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새로운 대안적 발전모델을 찾을 필요성을 일깨워준다고 결론짓는다. 이성형의 『IMF 시대의 멕시코: 신자유주의 개혁의 명암(1982-1997)』의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쟁을 통해 보듯이 이 책은 당시 외환위기로 인해 IMF의 신자유주의 모델을 불가피하게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사회에 하나의 선 경험 사례로서 멕시코의 상황을 비판적 시각에서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가야할 길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촉발했다는 점에서 충분한 학문적 사회적 기여를 했다.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 총체적 분석의 완성과 대안 탐구의 시작

『IMF 시대의 멕시코: 신자유주의 개혁의 명암(1982-1997)』을 출판한 이듬해 이성형은 라틴아메리카 다른 국가들의 신자유주의 개혁 사례들을 묶어 본격적인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 분석서인 『신자유주의의 빛과 그림자: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와 경제』(Rhee 1999)를 내놓았다. 여기에는 기존의 멕시코 사례 외에도 이성형이 처음 신자유주의에 관심을 가졌던 아르헨티나의 사례와 후지모리로 인해 주목받았던 페루의 사례가 소개되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세계화와 함께 논의되던 메르코수르(Mercosur: 남미공동시장)와 같은 지역통합의 사례들, 신자유주의 대안과 관련된 라틴아메리카의 이론적 논의들, 신자유주의에 따른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적 변화와 국제관계의 변화들까지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와 관련된 광범위한 주제들이 다양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 책은 그가 지금까지 연구해 왔던 다양한 주제들을 신자유주의라는 이름 아래 체계적으로 편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보면 그의 다양한 정치경제 관련 연구들에는 항상 신자유주의라는 연결 끈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경제와 관련된 글들(제1부의 ‘중속적 신자유주의: 이론과 사상’, ‘중속적 신자유주의: 경험과 대안논의’; 제2부의 ‘아르헨티나의 신자유주의 경제개혁’, ‘신자유주의 멕시코: 1997-98년의 소모’, ‘후지모리의 페루’; 제3부의 ‘1980년대 경제위기와 구조적 대안들’, ‘경제통합운동의 현황과 문제점’, ‘메르코수르의 현황과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우선 제1부의 ‘중속적 신자유주의: 이론과 사상’ 그리고 ‘중속적 신자유주의: 경험과 대안 논의’ 두 장은 크게 보아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와 관련된 이론적 동향과 대안 논의에 대한 소개라고 할 수 있다. 일단 라틴아메리카의 토착적 신자유주의 이론을 이성형은 ‘중속적 신자유주의’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그의 대표적 이론가 중 한명으로 헤르난도 데 소토(Hernando de Soto)와 그의 대표작인 『또 다른 길: 비공식 혁명』(*El otro sendero: La revolución informal*, 1985)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자신의 것을 선호하는 라틴아메리카의 비판적 지식인들은 신자유주의 비판에 있어서도 서구 학자들의 신자유주의 이론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기보다 라틴아메리카 지식인의 신자유주의 사상을 논쟁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이런 점에 있어서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 사상의 대표적 인물로 꼽혔던 인물은 멕시코의 시인 옥타비오 파스와 페루의 소설가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였다. 이들 둘 모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시인이자 소설가이지만 이들은 모두 정치적으로도 활발하게 자신들의 주장을 피력함으로써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 사상의 대표적 인물로 간주되게 되었다. 그런데 이들이 신자유주의 사상에 입각해 라틴아메리카 발전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데 소토의 『또 다른 길: 비공식 혁명』이었다. 따라서 이 책은 1980년대와 1990년대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이성형도 이러한 점을 인정해 그의 저서를 ‘중속적 신자유주의’의 핵심 논리로 소개했던 것이다.

이성형은 그의 핵심적 주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라틴아메리카는 지금까지 ‘중상주의’사회였다. 중상주의는 정치적으로 관리되는 경제를 가리킨다. 이러한 체제 하에서 경제는 효율성보다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운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체제 하의 경제행위자들은 법률을 준수하는데 드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탈법적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다. 페루의 비공식부문의 확대는 그렇게 생긴 현상이다. 즉 비공식부문은 중상주의에 대한 ‘일종의 봉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공식부문이야말로 페루 시장경제의 맹아이다. 결론적으로 비공식부문은 사회경제적 문제라기보다는 대안이며, 진정한 문제는 규제나 개입을 통해 민간 이니셔티브를 막는 중상주의 국가이다.

이러한 주장을 보면서 이성형은 이를 선진국의 신자유주의와 다른 ‘중속적 신자유주의’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그의 가장 큰 특징으로 ‘자립성의 죄악사’(세계 경제의 표준을 따르지 않으면 빈곤과 고립으로 귀결될 뿐이라는 주장), ‘미래 발전에 대한 맹목적 기대감’, ‘빈곤의 미덕에 대한 칭송’(데 소토의 비공식 부문 예찬론에서 보듯이 빈곤이 생산적이고 창조적이며 연대적인 성격을 가짐으로써 진정한 발전의 잠재적 힘이라는 주장), 그리고 ‘(지배 질서에 대한 순응을 의미하는)타협적 평화’를 들고 있다(Rhee 1999, 50-55).

이성형은 이러한 ‘중속적 신자유주의’를 라틴아메리카 발전에 있어서 대외중속성에 대한 비판 없이 모든 것을 ‘내 탓’으로만 돌리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신자유주의의 미래는 밝지 않기 때문에 신자유주의는 언젠가 기층민중의 저항을 불러와 폭력적 사태로 비화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대외 중속적 구조개혁과 재편에 반대하는 중도좌파 정치세

력의 부상을 가져올 수도 있으며, 한편으로는 권위주의 체제로의 회귀 가능성도 있다고 예견한다(Rhee 1999, 64-66).

이 책이 출판되고 얼마 되지 않아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를 계기로 시작된 라틴아메리카 대중시위의 확대, 반미 운동의 전개, 좌파 정부의 등장 등을 보면 그의 예견이 상당부분 맞아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민주주의 체제는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좌파 정부들이 일부 반미좌파 정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대외 종속적 구조의 개혁과 재편보다는 신자유주의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예외로 한다면 말이다.

한편 ‘종속적 신자유주의: 대안과 논의’에서 이성형은 종속적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CEPAL 중심의 ‘신구조주의’에 주목한다. 그는 신구조주의가 워싱턴 컨센서스의 논의를 전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 국가 역할의 재조정과 적극적 개입, 해외 채권자들의 외채 상환 비용 분담 촉구, 행정부의 독주가 아닌 민주적 합의를 통한 개혁 실천 등의 대안적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형평을 동반한 성장’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성형은 신자유주의 대안 제시에 있어서 전혀 급진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이지 않다. 심지어 그가 신구조주의를 신자유주의에 대한 진정한 대안으로 생각했는지도 의문이다. 왜냐하면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신구조주의를 또 다른 모습의 신자유주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는 IMF식의 신자유주의를 이데올로기적 신자유주의, 신구조주의를 실용적 신자유주의로 구분하는 사람도 있다. 어쨌든 신구조주의는 신자유주의의 수정 혹은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최소한의 의미를 가진다. 세계화라는 국제적 환경 하에서 라틴아메리카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처방이라는 점에서 특히 더 그러하다. 2000년대 라틴아메리카 온건좌파 정부가 대부분 신구조주의적 처방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중요성은 보다 강조할 만하다. 이성형도 아마 이런 현실적 대안에 마음이 끌렸는지도 모르겠다.

신자유주의주의에 대한 이런 이론적 논의 외에도 이 책은 신자유주의 사례분석으로 아르헨티나, 멕시코, 페루의 경험을 소개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병과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에서 그는 기존의 아르헨티나에 대한 자신의 연구결과들을 총 집합시켰다. 그는 페론 정부가 들어서고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1945년부터 시작해 메넴 대통령의 신자유주의 개혁까지 아르헨티나의 경제를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외채위기 이후 알폰신 정부가 실행한 구조주의

적 비정통과 아우스트랄 계획의 구체적 정책과 실패요인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이어서 메넴정권의 통화주의적 정통과 신자유주의 구조개혁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의 결과로서 공공영역의 야만적 사유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소득의 집중, 태환법에 따른 통화주권의 상실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메넴의 개혁이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잡는 데에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것이 장기적으로 경제안정을 이룰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hee 1999, 170-172). 이 글 이후 채 3년이 지나지 않아 아르헨티나 경제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볼 때 그의 전망이 단순히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문제점을 제대로 직시한 결과였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 멕시코: 1997-1998년의 소묘’에서 이성형은 1994년 폐소화 위기 이후 세디요 정부 하의 멕시코를 분석한다. 이는 『IMF 시대의 멕시코: 신자유주의 개혁의 명암(1982-1997)』의 후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이 시기의 멕시코 정치경제 개혁에 대해서도 여전히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다. 정치적으로 세디요 정부의 정치개혁으로 인해 혁명 이후 멕시코 역사에서 처음으로 의회에서 여소야대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멕시코 민주화의 시금석은 결국 2000년 대선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와 더불어 안전과 공공질서의 해체를 멕시코 사회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경제적으로도 그다지 우호적 평가를 내리지는 않는다. 멕시코가 비록 폐소화 위기를 단기에 극복했지만 1998년 동아시아 경제 위기를 계기로 다시 경제 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시기의 멕시코 경제에 대한 그의 비판은 과거 살리나스 시대에 비해 다소 누그러진 것처럼 보인다.

‘후지모리의 페루’에 대한 그의 비판은 앞의 멕시코나 아르헨티나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는 후지모리의 신자유주의가 선거 공약과 달리 친위쿠데타를 통한 총격요법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그 자체의 경제사회적 결과보다는 그로 인한 페루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정치적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또 다른 주요 주제인 경제통합의 문제에 있어서 이성형은 경제통합을 크게 보아 NAFTA처럼 미국 등 선진국과의 통합과 메르코수르처럼 라틴아메리카국가들만의 통합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전자의 경우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미국과의 개별적 통합은 이들 국가들의 대미협상력을 약화시키고, 해당국 주권이 침해됨으로써 중속성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반면 후자의 경우 역내 무역의 증가와 투자증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나, 회원국 간의 경제적 비대칭성, 낮은 상호 의존성, 거시경제정책 조정의 어려움 등의 이유를 들어 그의 확대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이 책은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를 다양한 측면에서 세밀하게 분석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사례 분석이 지나치게 아르헨티나, 멕시코에 집중됨으로써 1970년대부터 시작되어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성공한 신자유주의 모델로 간주되는 칠레의 사례와 점진적 개혁을 추구하는 브라질식 신자유주의 모델 등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의 다각적인 모습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지 못한 것은 한 가지 아쉬운 점이다.

어쨌든 이성형의 『신자유주의의 빛과 그림자: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와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던 우리나라에 큰 반향을 몰고 왔다. 특히 신자유주의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던 진보 진영에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 경험에 대한 그의 비판적 분석은 그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하나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이들은 모두 이 책이 1997년 이후 외환위기 극복의 성공사례로서 흔히 언급되던 멕시코의 실상과 세계 공영이라는 명분 아래 전개되는 신자유주의 시장개혁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모두 신자유주의에 대한 라틴아메리카의 대안 탐구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인다. 이성형이 소개한 신구조주의 대안에 대해 이들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이라는 점에서 공감하나, 그것이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큰 흐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우려한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 책이 라틴아메리카 연구자보다 국내 진보진영 학자들에게서 보다 많은 반향을 불러왔다는 점이다. 신자유주의 비판에 목말라 하던 그들에게 라틴아메리카에서 신자유주의가 야기한 생생한 실상은 매우 흥미롭게 다가갔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에 대한 라틴아메리카 전공자들의 반응이 크지 않았던 것은 큰 아쉬움이다. 라틴아메리카를 연구하는 전공자들의 다양한 시각들이 서평과 같은 형태로 활발히 전개되었어야 했다. 그럼으로 라틴아메리카의 신자유주의의 실제 모습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오고갔어야 했다. 이는 필자를 비롯해 모든 라틴아메리카 전공자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위기 하의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 분석

『신자유주의의 빛과 그림자.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와 경제』가 출판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르헨티나에 경제위기가 발생했다. 태환법을 통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급진적이고 확고한 신자유주의 개혁을 단행했던 아르헨티나에서도 마침내 경제위기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1994년 멕시코의 폐소화 위기, 1998년 브라질의 헤알화 위기에 이어 라틴아메리카에서 또 다시 발생한 경제 위기였다. 이런 위기가 반복됨에 따라 이제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이 불평등과 실업 등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부정적 효과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성장 그 자체에 있어서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아르헨티나의 위기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에 대한 전반적 재고와 반미주의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좌파정부의 부상이라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이성형은 당연히 아르헨티나의 위기에 주목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제도혁명당 장기집권이 무너지고 새롭게 등장한 멕시코의 폭스 정부와 몰락한 페루 후지모리에 대해서도 여전히 관심을 보였다. 게다가 지금까지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사례로서 가장 성공한 신자유주의 모델인 칠레와 그의 대척점에서 반미와 반신자유주의를 외치며 등장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의 결과들은 『라틴아메리카. 영원한 위기의 정치경제』(Rhee 2002)에 모아졌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앞서 언급한 두 권의 단행본과는 달리 논문 수준의 심도 있는 글들은 아니다. 그것들은 대부분 『SMOG』, 『민족21』, 『진보평론』과 같은 시사 잡지에 실린 글들이다. 이것은 저자가 머리말에서 말하듯이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중남미 정치경제 이야기’이다. 따라서 이 책은 정치경제 관련해서 그가 쓴 책들 중에서 가장 쉽게 읽힌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다고 내용의 깊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은 정치경제 실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복잡한 수치와 어려운 용어 없이도 충분히 가능함을 보여준다.

이 책에는 기존의 아르헨티나, 멕시코, 페루 외에도 칠레와 베네수엘라의 사례가 더해졌다. 그러나 역시 이 책의 중심은 저자가 항상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으며, 또 막 경제위기가 발생한 아르헨티나이다. 그는 이 글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르헨티나 병의 근원이 과두제계급의

퇴행적 성격에 있다고 본 점이다. 흔히 아르헨티나 병에 대해서 말할 때 보수주의자들은 페론 시대의 국가주의 혹은 강성의 노조집단을 그 원인으로 지목한다. 그런데 이성형은 그러한 요인을 일부 인정하지만 그의 근본적 요인은 내부의 계급적 요인에 있다고 본 것이다. 그의 말을 빌려보자. “이 시절에 형성된 과두제 세력의 지대 추구 습성은 향후 고질적인 저발전의 원인이 되고, 또 이 습성을 한 번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한 것이 바로 이 나라가 저발전의 미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 토지제도와 농지개혁이 향후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 이제 아르헨티나의 진짜 주인은 대공황 이전처럼 다국적 자본과 이들 과두제 세력이 연대한 신판 ‘제국주의-과두제 동맹’이다.”(Rhee 2002, 16-17).

이러한 시각은 라틴아메리카 저발전의 요인이 주로 외부에 있다고 본 저자 자신을 비롯한 라틴아메리카 일부 진보 진영의 기존 시각을 벗어나는 것이다. 종속이라는 외부적 요인은 항상 존재한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족자본가 계급이 성숙했다면 민족 자본주의 발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의 저발전은 결국 국내의 계급적 문제이다. 이는 라틴아메리카 정통좌파들이 종속이론을 비판하는 테제이다. 발전주의 또한 봉건적 잔재를 라틴아메리카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해왔다. 이런 점에서 전통좌파와 발전주의는 맥락을 같이 한다. 어쨌든 주로 종속성이라는 외부적 요인을 강조했던 저자가 국내의 계급적 요인에도 주목했다는 점은 흥미롭다.

한편 아르헨티나의 위기와 관련하여 이성형이 주목하는 또 한 가지는 그에 대한 국내 주요 언론의 태도이다. 한국의 언론들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늘 그렇듯이, 이번 아르헨티나의 위기에 있어서도 여전히 페론주의(포퓰리즘)와 노조 그리고 과도한 복지를 문제로 삼았다. 그러나 이성형은 이번 재난의 요인이 메넴 행정부의 태환법 체제와 신자유주의 개혁개방 정책에 있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따라서 다시 그의 말을 빌리자면, “국민경제가 생산자의 왕국이 아닌 금융천국으로 바뀌면서 생긴 이 기가 막힌 사태를 보면서 50년 전의 페론주의나 에비타의 명령을 떠올리는 한국 언론들의 낡은 가락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Rhee 2002, 44).

한편 2000년 제도혁명당(PRI) 71년 장기집권이 막을 내리고 야당인 국민행동당(PAN)의 폭스 후보가 들어선 멕시코에 대해 이성형은 ‘폐허에 비치는 서광’이라는 제목에서 보여주듯이 희망에 찬 전망을 제시한다. 그는 폭스

정부의 정책을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려는 라틴아메리카의 대안’에 가깝다고 보았다. 이를 두고 그는 칠레 리카르도 라고스 사회당 정부나 아르헨티나의 페르난도 데 라 루아 라디칼당 정부와 같이 “과격하 신자유주의 정권의 퇴조와 함께 등장한 중도파 정부 내지 중도좌파 정부의 붐 현상의 일환이기도 하다”라고 평가한다(Rhee 2002, 147). 아르헨티나의 위기와 동시에 신자유주의를 수정하려는 다양한 움직임의 등장에서 그는 변화의 희망을 본 것일까?

그러나 실제 폭스 대통령이 소속된 국민행동당은 전형적으로 우파로 분류된다. 하지만 폭스정부가 멕시코 개혁좌파들의 전폭적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고, 또한 그들 중 상당수가 행정부에 참여했기 때문에 폭스 정부를 본질적으로 중도좌파라고 분류하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 2000년대 들어서 라틴아메리카에서 사실 좌파나 우파 모두 실용적 중도노선을 걷고 있기 때문에 정책만으로 평가하면 사실 이들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우파인 국민행동당 소속이기는 하지만 폭스 정부의 정책을 중도 좌파적 성격을 가진다고 평가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한편 권력에서 물러나 망명의 길에 접어들 수밖에 없었던 페루의 후지모리에 대해서는 공과를 동시에 평가하고 있다. 우선 공으로는 이전 알란 가르시아 정부 때 발생한 경제의 혼란 상태를 극복하고 국제금융권의 신뢰를 회복한 점, 세계개혁을 통해 재정안정을 획득한 점, 센테로 루미노소 게릴라 집단을 진압하고 정치적 평화를 획득한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런데 정치적 평화의 달성을 제외하고 나머지 성과들은 1990년대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신자유주의 정책도 모두 획득한 것으로 이성형이 유독 페루에 대해서만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다소 이채롭다. 아마 그것은 1980년대 페루의 경제가 그 어떤 나라들보다 더 심각한(저자의 말을 빌리자면 ‘아나키한’) 상태였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어쨌든 그는 후지모리의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가 보는 가장 큰 문제점은 페루 경제의 1차 산품 수출경제로의 회귀이다. 그로 인해 저자는 페루 경제가 소위 ‘화란병’에 빠질 것을 우려한다. 동시에 자원개발이 주로 아마존 지역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그로 인한 생태환경 파괴로 인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거리가 멀다는 점을 지적한다. 성장률도 널뛰기 패턴을 보임으로써 높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다고 평가한다. 어쨌든 멕시코의 살리나스나 아르헨티나의 메넴 보다는 후지모리에 약간 후한 점수를

주기는 하지만 그 또한 긍정적 평가와는 거리가 먼 듯하다.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성형의 이러한 비판적 평가들을 보면서 필자는 가장 성공한 사례인 칠레에 대해서 그가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인지 매우 궁금했다. 이 책 이전까지 그는 칠레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칠레의 사례를 처음 소개한 이 책은 그런 점에서 또 매우 흥미롭다.

이성형은 여기서 아르헨티나와 멕시코의 개혁과 칠레 개혁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주목한다. 그는 “칠레 경제 기적의 배경에는 의외로 국가의 적절한 개입과 규제가 가미된 ‘개입주의 국가’적 요소가 있다”고 한다. 특히 1970년대와 달리 1982년 외채위기 이후 칠레는 “개방과 개혁 기초를 유지하되 적절한 개입과 규제로 국가의 경제조정능력을 강화시킨 것이 특징이다. 초기에 극단적인 워싱턴 패키지를 실행한 모델에서 동아시아의 개입형 모델 쪽으로 이동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칠레 경제에 있어서 국가개입의 대표적 사례로는 1982년 중반 이후 외국자본이 투자할 경우 1년 내 돈을 빼내갈 수 없도록 한 핫머니 규제 정책이 대표적이다(Rhee 2002, 212).

이런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성형은 1차 산업 중심의 칠레 경제구조가 탈산업화이다 환경파괴 등의 문제를 야기하며 불평등의 심화로 내수시장이 위축되는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그에 따라 칠레 모델에 대한 과대평가를 삼가야 한다는 단서를 빠트리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차베스의 등장으로 베네수엘라도 그의 관심의 레이더에 잡혔다. 칠레 모델과는 대척점에서 반미주의의 상징이 된 차베스에 대한 이성형의 평가는 또한 매우 흥미롭다. 그러나 아쉽게도 2000년대 초반의 시점에서 이성형의 차베스에 대한 평가는 사실 이 글만으로 정확히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는 우선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말을 빌려 차베스가 ‘역사적 비전과 뛰어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임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그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전문 사회학자 그레고리 월퍼트의 말을 빌려 차베스가 정치, 농지개혁, 부패 척결, 교육부문 투자, OPEC을 통한 유가인상, 실업률 감소 등등 다양한 측면에서 성과를 낳았음을 소개한다.

그러나 이성형은 차베스의 초기 안정화 정책이 통화주의 정통파 정책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한다. 차베스는 2000년대 초반 균형재정 노선을 고수했으며, 불리바르화의 고평가를 유지했고, 명목임금을 동결했으며, 연기금이나 금융이나 텔레커뮤니케이션 일부를 민간 부문에 개방했다. 따라서 그는 좌파와

노조로부터 신자유주의자라는 비난을 받았다는 것이다.

지금에 와서 보면 차베스에 대한 이러한 평가가 어처구니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초기, 그러니까 유가 인상과 2002년 쿠데타 사태가 있기 전, 차베스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 의해 그러한 평가를 받았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베스도 다른 라틴아메리카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를 불가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이성형이 그 후 반미와 반신자유주의를 확실히 한 차베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지 다시 궁금해진다. 그에 대한 답은 다음 장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 책에 대한 국내의 반응은 앞서 소개한 두 권의 책과는 완전히 달랐다. 앞의 두 권에 대한 반응이 주로 외환위기 이후 IMF의 신자유주의 모델에 직면한 국내 진보계열 학자들이 라틴아메리카의 사례를 통해 그의 경험적 실체를 들여다보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 책에 대한 반응은 주로 라틴아메리카 그 자체를 알고자 하는 아마추어 입문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수많은 블로그나 인터넷 서점 서평에서 볼 수 있는 이들의 반응은 하나 같이 이 책을 통해 라틴아메리카 정치경제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이다. 필자 또한 이 책의 독후감을 ‘중남미 정치의 이해’ 수업 시간에 과제로 여러 번 내어 주었던 터라 이 책이 그런 측면에 있어서 분명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필자가 아는 이성형은 아마 앞의 두 책에 대한 반응보다 이 책에 대한 아마추어 독자들의 그러한 반응을 더 즐겼으리라 생각된다.

좌파 정부 하의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 분석

『라틴아메리카. 영원한 위기의 정치경제』(Rhee 2002) 이후 신자유주의와 관련된 새로운 저서 『대홍수.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 20년의 경험』(Rhee 2009a)이 나오기까지 상대적으로 긴 7년의 시간이 걸렸다. 그 이유는 그가 이 기간에 병마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병마에 시달리면서도 이성형은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열정을 멈추지 않았다. 이 시기에 그는 딱딱한 정치경제에서 벗어나 역사와 문화에 빠져들었다. 엔리케 크라우세(Enrique Krauze)의 『멕시코 혁명과 영웅들』(2005)은 그가 입원 중에 병상에서 번역한 책이다. 『라틴아메리카의 문화적 민족주의: 벽화, 국민음악, 축구를 통해 본 정체성 정치』(Rhee

2009b)도 그런 관심의 결과이다. 그렇다고 그가 이 시기에 신자유주의에 대한 연구를 중단한 것은 아니었다.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 연구는 항상 그의 연구의 중심에 있었다. 아르헨티나 위기 이후 2000년대 좌파 정부가 부상하는 시기의 신자유주의 연구에 대한 결과물들을 묶은 것이 바로 『대홍수.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 20년의 경험』이다.

책의 제목인 ‘대홍수’에 대해 저자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그것은 크게 보아 1990년대 이후 닥쳐온 신자유주의의 거대한 파도일 수도 있고,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일 수도 있을 것이다. 프레시안의 황준호 기자는 이 책에 대한 서평에서 이 전의 『신자유주의의 빛과 그림자』가 “홍수가 만수위에 올랐을 때를 논했다면, 10년 뒤 나온 이번 책은 범람했던 물이 거의 빠지고 난 뒤 드러난 참상에 대한 기록이다”(Pressian, 2009.11.21)라고 말한다. ‘대홍수’를 신자유주의의 그 자체로 본 것이다. 지금 시점이 신자유주의라는 대홍수가 빠진 뒤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어쨌든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 20년의 경험을 담은 『대홍수』를 통해 이성형이 보여 주고 싶었던 것은 대홍수의 와중에서 피해가 큰 자와 살아남은 자가 갈린다는 점이다. 그러면 누가 피해가 컸고, 누가 살아남은 것인가?

그에 말해 따르면 “이상하게도 워싱턴 컨센서스를 열렬히 수용한 나라들은 모두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맞이했다. 아르헨티나, 멕시코, 볼리비아는 경제위기와 더불어 격심한 정치적, 사회적 위기를 함께 경험했다. 반면에 워싱턴 컨센서스를 수용하되 발전주의 전통의 견제를 받았던 브라질의 경우는 비교적 큰 무리가 없이 시장경제 개혁을 지속할 수 있었다. 과격한 개혁 스타일은 신자유주의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큰 후유증을 치렀다. 쇼크 요법은 이제 낡은 처방전임이 만사에 드러났다.”(Rhee 2009a, 5-6).

『대홍수』에서 이성형은 과거 『IMF 시대의 멕시코』와 『신자유주의의 빛과 그림자』에서 보여주었던 신랄한 비판적 입장에서 다소 물러난 모습이다. 그는 이제 신자유주의의 열광적 지지자나 도그마적 비판자에서 벗어나 각각의 사례를 두고 찬찬히 공과를 나누어야 한다고 말한다. 2000년대 라틴아메리카 경제 상황의 호전과 중도좌파 정부에 의한 신자유주의 수정이 그의 비판의 칼날을 무디게 한 것이다.

어쨌든 발전 모델에 있어서 저자가 주목한 사례는 멕시코, 브라질, 쿠바였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그것은 쿠바의 경제개혁을

신자유주의 경험에 포함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이다. 1990년대 구소련의 지원이 끊어진 상황에서 쿠바는 자구책으로 경제 개방 등 부분적 시장개혁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주의의 기본적 틀 내에서 제한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그것을 신자유주의 개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쿠바의 모델을 중앙집중적 계획경제에 시장을 도입하는 하나의 발전 모델 사례로서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의 다양한 경험 내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 범위 설정의 논쟁과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쿠바의 사례를 신자유주의 경험에 포함한다고 해서 카테고리 설정의 오류라고 볼 수는 없다. 단지 그것은 카테고리 설정에 있어서 입장의 차이일 뿐이다. 그만큼 신자유주의의 개념은 포괄적 의미를 가진다.

또 하나 이 책에서 아쉬운 점은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더 이상 다루지 않았다는 점이다. 아르헨티나는 키르치네르 정부의 등장과 함께 IMF와의 협의 없이 독자적 노선을 걸어오고 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주 수출품인 농산물 가격의 호황 등의 요인으로 아르헨티나 경제의 상황은 혼란과는 거리가 멀다. 외환위기 이후 IMF와의 협상이 필수인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에서 아르헨티나의 최근 사례는 따라서 매우 흥미롭다. 이 책이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더 이상 다루지 않은 것은 큰 아쉬움이다.

이 책이 앞서 소개된 그의 책들과 또 다른 차이점은 신자유주의 개혁의 구체적 정책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앞의 책들이 국가별로 개혁 정책의 전반적 내용과 그의 경제사회적 결과들을 주로 다루었다면, 이 책에서 저자는 ‘멕시코 폭스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동정책’, ‘칠레 전력산업의 민영화의 성과와 문제점’, ‘남미 천연가스 산업의 재구조화: 현황과 전망’, ‘남미 천연가스 산업 민영화 18년의 경험: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등 신자유주의 개혁의 구체적 정책들을 평가 대상으로 삼았다.

우선 발전 모델과 관련하여 저자는 멕시코 사례를 살펴본다. 멕시코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나라로서 같은 협정을 맺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한다. 이성형은 멕시코의 경험을 무역, 투자, 성장, 고용, 임금, 소득분배, 식량주권 등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 본 다음, 결론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이 기대했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가져오지 못했으며, 농업부문에서 심각한 위기를 야기했고, 기업구조를 양극화하고, 소득과 지역을 양극화했으며, 금융 보험 의료 교육 등 서비스 산업을 외국계가 장악하고, 통상마찰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한다(Rhee 2009a, 55-57).

물론 저자는 여러 가지 조건의 차이로 멕시코의 경험을 우리와 동일시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 아래에서 멕시코에 그와 같은 부정적 측면이 나타난다고 해서 개방 그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그보다는 이와 같은 측면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서 개방의 구체적 방법과 경로를 잘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한편 브라질에 대해서 저자는 지금까지 라틴아메리카의 그 어떤 신자유주의 사례보다 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성형은 브라질이 앞으로 양극화와 치안부재, 브라질 코스트, 고비용 정치구조라는 산재된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그가 가진 잠재력을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건부 낙관론’을 제시한다(Rhee 2009a, 60).

특히 노동자 출신의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신자유주의 개혁을 받아들인 룰라 정부에 대해서도 그의 평가는 과거와 같이 비판일색이지만은 않다. 브라질의 성과가 비록 룰라 정부 정책의 결과만은 아니겠지만 -2000년대 자원 가격의 상승이 자원에 주로 의존하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제적 조건을 크게 향상시켰다, 어쨌든 브라질 경제의 현 상황이 그의 비판의 날을 무디게 한 것만은 사실이다.

쿠바 경제 개혁에 대해서도 1989년 이후 살아남기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같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중국이나 베트남에 비해 쿠바 개혁의 한계를 비판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쿠바의 유아사망률, 평균수명, 인간 개발지수, 의사 수 등의 지표를 비교하면서 쿠바가 미국의 경제 봉쇄와 압박의 강화라는 외적 변수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적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면서 성공적으로 개혁과 개방에 적응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Rhee 2009a, 139). 물론 그러한 성공 이면에 달러사용 허용에 따른 이중경제구조로 인한 다양한 차원의 사회적 불평등 문제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쿠바 경제개혁에 대한 그의 긍정적 평가를 뒤바꿀 정도는 아닌 것 같다.

하지만 ‘21세기 사회주의’를 주장하면서 카스트로 형제와 함께 라틴아메리카의 대표적 반미 지도자로 부상한 차베스에 대해서는 그다지 긍정적 평가를 내리지 않는다. 이성형은 차베스가 기득권층이 독식하던 석유수입을 빈민층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돌림으로써 사회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석유산업의 국가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도

없지 않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석유수입의 복지비용 지출과 석유산업에 대한 외국자본 유입 제한에 따른 투자부족으로 인한 석유 생산량의 감소, 국내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미션 프로그램들의 낮은 효율성으로 인한 생필품 공급 부족, 정치적으로 다원주의 부재 등의 문제를 들어 차베스 정부의 성과에 대해서는 앞서 브라질의 룰라 정부나 쿠바의 개혁에 비해 덜 우호적 입장을 보여준다.

그는 차베스 정부를 ‘페트로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성형이 포퓰리즘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한 규정은 큰 의미가 없다. 그는 다음과 같이 부연한다. “차베스 정부가 아무 생각 없이 에너지 자원과 국부를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Rhee 2009a, 462).

이래저래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주의에 대해 이성형은 아직 명확한 평가를 내리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차베스 정부에 대한 이성형의 이러한 유보적 입장은 차베스에 대해 열광하는 국내 일부 진보진영에 비해 보다 유연하다. 그것은 라틴아메리카 전문가로서 차베스와 같은 사례를 일찍이 많이 보아왔던 이성형이 별도의 경쟁력 있는 산업 육성 정책 없이 석유에만 의존하는 베네수엘라 경제의 미래를 그렇게 밝게 보지만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구체적 정책들에 대한 이성형의 평가도 전반적으로 비판적이다. 멕시코 폭스 정부의 노동정책은 ‘멕시코판 제3의 길’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고용관련 지표의 개선은 없고, 노동개혁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만을 의미하게 되었으며, 기존의 특권적 코포라티즘 노조는 약화되지 않고 특권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칠레의 전력 민영화 사업에 대해서는 독점화에 따른 고가격, 공급부족으로 인한 잦은 단전, 탈국적화에 따른 국부 누출 등의 문제로 인해 결코 성공작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한다. 가스 산업의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분석 대상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대한 평가가 다르다. 먼저 아르헨티나는 가스 산업을 완전 민영화함으로써 가스 산업이 완전히 탈국적화되었다. 그리고 가스 산업을 인수한 외국기업은 추가 탐사 등 투자는 등한시 하고 생산량 증가를 통해 투자수익 회수에만 집중했다. 그럼으로 아르헨티나는 결국 에너지 대란을 겪어야만 했다. 반면 브라질은 가스 산업을 일부 민영화했지만 국영석유회사인 페트로브라스가 민간 기업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민영화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민영화로 인해 오히려 탐사와 시추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 그로 인해 브라질은 대규모 유전과 가스전을 발굴하여 에너지 수입국에서 에너지 자립국으로 발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결국 이성형은 민영화 그 자체가 좋다 나쁘다는 이데올로기적 입장에서 벗어나 있다. 대신 사례별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따라 그에 대한 평가도 달라진다는 실용적 입장을 취한다.

『대홍수.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 20년의 경험』에 대한 국내의 반응은 매우 컸다. 연합뉴스를 시작으로, 한겨레, 국민일보, 서울신문, 부산일보 등이 이 책을 크게 소개했으며, 경향신문과 한국일보는 저자 인터뷰나 저자초대석 등의 공간을 마련해 이 책을 특별히 다루었다. 대표적 보수언론사 중 하나인 중앙일보가 비록 2줄짜리 짧은 신간소개이지만 이 책을 소개했다는 것도 흥미롭다.

그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앞서 잠깐 언급한 프레시안의 서평이다. 서평에 앞서 이루어진 저자와의 인터뷰에서 프레시안의 기자는 이 책에서 간혹 드러나는 신자유주의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언급에 주목하면서 이를 저자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재평가인가라고 묻는다.

그에 대해 이성형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다. “물이 빠진 후 보니까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신나게 때려 고쳤던 부분은 더 많이 깨져 있었다.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멕시코의 에너지 민영화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브라질의 경우는 에너지 부문에 손을 안 댔고 금융도 안 빼앗겼기 때문에 지금 ‘대박’이 날 수 있는 상황이 찾아왔다. 또한 2000년 이후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국제정치의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지면서 중남미에 활로가 생겼다.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인 상황을 말한 것이지, 신자유주의에 대한 평가를 바꾼 건 아니다.”(Pressian, 2009.11.21).

2000년대 들어 농산물과 광산물 등 자원 가격의 상승으로 라틴아메리카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 또 좌파 정부들은 이러한 호조건을 바탕으로 지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조건의 호전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그의 비판을 어느 정도 무디게 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특히 브라질 톨라 정부에 대한 그의 평가는 그것이 비록 신자유주의를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그의 신자유주의 비판에서 보여주었던 입장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다. 그의 신자유주의 비판이 이데올로기적이 아니었음을 말해주는 증거이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브라질 경제의 실상과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한 그의 노력에 함께 동참했던 필자로서는 그의 결론을 볼 수 없어서 아쉬울 뿐이다.

결론을 대신하여: 새로운 대안의 탐구

이성형의 신자유주의 비판과 대안 탐구의 여정을 그의 책 제목을 통해 살펴보면 라틴아메리카가 외채위기 이후 IMF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고, 그로 인해 이 지역에서 지배적 발전 모델이 된 신자유주의는 빛과 그림자를 야기했고, 그러다가 외환위기가 반복되는 영원한 위기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으며, 결국에는 대홍수를 맞이해 살아남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누어지게 되었다는 흐름이다. 그렇다면 대홍수 이후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제 더 이상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는 없다. 그러나 『대홍수』 이후 그는 라틴아메리카 경제와 관련하여 두 편의 연구 논문을 남겨놓았다. 그를 통해 우리는 그가 보고자 했던 대홍수 이후의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 흐름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을 것이다.

한 편은 외교안보연구원 『주요국제문제분석』에 실린 ‘글로벌 금융위기와 라틴아메리카: 각국에 미친 충격과 대안 논의’(Rhee 2009c)이고, 또 다른 한편은 『이베로아메리카 연구』에 실린 ‘중국의 등장과 포스트-신자유주의: 라틴아메리카 최근 정세에 대한 지정학적 관찰’(Rhee 2012)이다. 이 글들에서 이성형은 주로 ‘포스트-신자유주의’ 대안과 그의 실질적 적용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우선 ‘글로벌 금융위기와 라틴아메리카: 각국에 미친 충격과 대안 논의’에서 이성형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단기적으로는 선진국 신용경색에 따라 라틴아메리카의 추가하락, 환율하락 등으로, 장기적으로는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1차 상품 가격하락에 따른 충격 등으로 라틴아메리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특히 대미 의존도와 1차 상품 수출입 여부를 두 변수로 보고 1차 상품 수출국이면서 동시에 대미의존도가 높은 멕시코와 같은 나라가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한다.

그에 따라 대안적 발전 모델로 여전히 신구조주의에 관심을 보인다. 신구조주의는 기본적으로 ‘환율 포폴리즘’이라고도 불리는 자국통화의 고평가 정책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제조업을 붕괴시키고, 이들을 단지 1차 상품 수출국가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한다. 또한 외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가 글로벌 위기에 쉽게 노출되는 취약성을 야기했다고 분석한다. 그에 따라 신구조주의 모델은 “국내저축을 지주로 삼고 상대적 저금리로 국내신용을 활성화하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한다. 또 그를 기반으로 강력한 산업기술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그를 지원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환율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한다. 한편으로 신구조주의는 과거의 발전주의와 달리 재정균형을 무엇보다 중요시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재정팽창에는 반대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불평등한 소득분배가 내수시장의 규모를 제한한다는 입장에서 재정균형을 깨지 않는 한 최대한의 복지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산업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 틀 내에서 국가의 역할을 일부 인정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목표는 세계화의 기본적 틀 내에서 1차 상품 수출경제에서 벗어나 제조업을 동시에 육성하는 것이다(Rhee 2009c, 14-15).

한편 ‘중국의 등장과 포스트-신자유주의: 라틴아메리카 최근 정세에 대한 지정학적 관찰’에서 이성형은 이러한 대안 논의를 보다 더 발전시키고 있다. 이 글에서 이성형은 라틴아메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권력을 잡은 중도좌파 정부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1차 상품 가격 상승에 따른 재정 수입으로 겨우 빈곤층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준임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이지 않고, 또 그의 수동성으로 인해 빈곤층의 자립 기반을 육성하기보다는 정부와 빈곤층 간의 후원-수혜 관계를 심화할 뿐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보다 급진적인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와 에콰도르 등의 신현정주의에 대해서도 그것이 집권 세력의 희망 사항을 헌법에 열거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한편 그들의 참여민주주의의 강조는 과거의 권위적 포퓰리즘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날카롭게 비판한다. 따라서 이들 모두 사회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한 대안적 발전 모델은 아니라고 보았다(Rhee 2012, 63-64).

따라서 중도좌파의 1차 상품 수출 의존 정책이나 급진좌파의 급진적 포퓰리즘에 맞서는 새로운 발전 전략으로서 이성형은 CEPAL의 ‘동반발전(development with equity) 전략에 관심을 가진다. 이에 따르면 국가는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해 보다 강하고 능력 있는 ‘경쟁국가’(competition state)를 기획해야 하며, 복지는 부담이 아니라 내수시장의 기반으로서 성장잠재력을 확충한다는 차원

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투자, 사회응집력을 제고하는 방안,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성형은 차베스와 같은 급진적 포퓰리즘을 대안으로 보지 않았다. 거기에서 그는 과거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의 권위주의를 떠올린다. 그렇다고 중도좌파의 정책에 만족하지도 않는다. 1차 상품 수출 의존 경제와 수동적 조건부 사회복지프로그램의 한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새로운 대안을 찾았다. 그러나 그가 찾는 새로운 대안은 급진적이거나 이상적이지 않다. 다만 경제적으로 1차 상품 의존경제에서 벗어나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 다원주의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이성형의 다음 책은 아마 신자유주의 대안 탐구와 그의 현실 적용 사례, 혹은 그의 적용 한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여기서 그는 멈추고 말았다. 그리고 세상을 미련 없이 떠났다. 이제 누가 그 일을 대신할 것인가? 라틴아메리카의 경제는 계속해서 변모해 가겠지만 누가 있어 우리에게 그의 발전과 관련된 거시적 논점들을 비판적으로 세밀하게 분석해서 전달해 줄 것인가? 오늘따라 그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진다.

참고문헌

- De Soto, Hernando(1985), *El Otro Sendero*, México: Diana.
- Krauze, Enrique(2004), *Biografía del Poder*, México: TusQuets, translated by Sung-Hyong Rhee(2005), *Mexico Heokmyeongkwa Yeongwungdeul*(Heros of the Mexican Revolution), Seoul: Kachi.
- Lee, Nae-Young(1999), “Sinjayujueui Kyeongjegaebyeoke Daehan Nakjejeomsu Maegigi(Giving a Failing Grade to Economic Reform of Neoliberalism),” *Kyeongjegasaboh*(Economy and Society), Spring, No. 41, pp. 237-245.
- Oh, Hyun-Mi(1999), “Seopyeong: IMF Sidaeeui Mexico(Review: Mexico in the Time of IMF),” *Sidaejeongsin*(Spirit of the Times), March-April, No. 3, pp. 1-12.
- Rhee, Sung-Hyong(1990), *Latin America Jabonjueui Nonjaengsa*(Marxist Debates on Capitalism in Latin America), Seoul: Kachi.
- _____ (1992a), “Argentina Ochaewigiwa Minjuhwa(Debt Crisis and Democratization in Argentine),” *Kukjejeongchinonchong*(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Vol. 32, No. 1, pp. 161-182.
- _____ (1992b), “Minseonjeongbujeeui Kyeongjejeongchaek. Alfonsin Jeongbueui Austral Gaehyeokeseo Menem Jeongbueui Kyeongje Gaehyeoke Ireugikaji(Economic Politics of the Government Elected by Popular Vote: From Austral Plan of Alfonsin’s Government to Economic Reform of Menem’s Government),” *Jiyeokyeongu*(Regional Studies), Vol. 1, No. 2, pp. 95-139.
- _____ (1992c), “Latin Americaui Aksunhwan, Talchulguneun Boineunga?(Latin America’s Vicious Circle. Is There Way Out?),” *Observer*, No. 29, pp. 466-477.
- _____ (1998), *IMF Sidaeeui Mexico*(Mexico in the Times of IMF),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_____ (1999), *Sinjayujueui Vitkwagrimja*(Light and Shadow of Neoliberalism), Seoul: Hangilsa.
- _____ (2002), *Latin America. Yeongwonban Wigiui Jeongchi Kyeongje*(Latin America. Politics and Economics of the Perpetual Crisis), Seoul: Yuksabipyongsa.
- _____ (2004), “Minjungjueui(Populism),” *Sin Dong A*, New Year’s Special Issue, pp. 50-55.
- _____ (2009a), *Daehongsu*(A Great Flood), Seoul: Greenbee.
- _____ (2009b), *Latin Americaui Munhwajeok Minjokjueui*(Cultural Nationalism of Latin America), Seoul: Gil.
- _____ (2009c), “Global Geumyungwigiwa Latin America(Global Financial Crisis and Latin America),” *Analysis of Major International Affairs*, Seoul: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 National Security, pp. 1-16.
- _____ (2012), “The Rise of China and Latin America in the Post-neoliberal

Stage,” *Revista Iberoamericana*, Vol. 23, No. 1, pp. 35-70.

Rouquié, Alain(1987), *América Latina: Introducción al extremo occidente*, México: Siglo XXI.

Touraine, Alain(1989), *América Latina. Política y Sociedad*, Madrid: Espasa Calpe.

Article Received: 2013. 04. 02

Accepted: 2013. 05. 13